

전일동향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472.50원에 마감

3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472.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50원 상승한 1,475.00원에 개장했다. 오전장에서 네고 및 외환당국 추정 물량에 환율은 1,465.50원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위안화 약세에 환율의 하락세는 제한됐다. 정규장 마감 무렵 환율은 매수세에 1,470원 초반대로 속등하며, 1,472.5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2.5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5.00	1475.00	1465.50	1472.50	1470.00
엔화	934.11	936.24	930.96	936.24	-	
유로화	1522.69	1525.56	1521.00	1525.56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6	-4.6	-12.26
결제환율(수입)	-0.92	-3.63	-10.49	-23.8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달러 강세 영향 속에...1,47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72.50) 대비 4.80원 상승한 1,475.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 기조 유지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0년물은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하 행보 및 미 신정부가 추진할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하며 6.60bp 상승한 4.601%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미 장기금리 상승에 연동해 108.45로 상승 마감했다. 한편 유로화는 완화적인 ECB의 정책 기조에 약세 흐름을 지속했다. 엔화는 BOJ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논의했다는 소식에도 약세를 보였다. 금일 환율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달러 영향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재 심판관 임명에 따른 탄핵 불확실성 완화에도, 국무위원 갈등 등 정치 불안 지속은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연금 환헤지 및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등은 환율의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업체 이월 네고 물량 유입도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70.00 ~ 1480.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04.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80원 ↑
	■ 美 다우지수 : 42544.22, -29.51p(-0.0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47.4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83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